

‘아이 키우기 행복한 광주’ 만든다

市, 내달 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 등 3대 핵심과제 발표 전국 최초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여성재단 기능 확대

광주시가 긴급아이돌봄센터 설립,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광주 0.97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1명이 안되는 유일한 국가다”며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중구적으로는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찾아오고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체계 속에서 ‘결혼-출산-육아-보육’ 단계별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시리즈 첫 번째로 ▲24시간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광주여성재단·일가정양립지원

본부 기능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내달 2일 문을 여는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거나 긴급 돌봄비를 구해야 할 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로서 광주시가 운영한다.

센터는 현재 상무지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입주해 있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센터 운영 후 수요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긴급아이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여성재단을 통해 10월부터 광역단체 최초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

을 이수한 ‘병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간병 및 투약 돕기, 정서적 지원 등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문 과정을 이수한 병원아동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병 돌봄 때문에 고민하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방침이다.

시는 광주여성재단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기능을 확대·조정해 결혼, 임신, 출산과 양육, 돌봄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여성재단은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 및 돌봄에 대한 업무 기능을 확대해 시민들의 삶을 결혼부터 아이 돌봄까지 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김대기자

현지 주민을 전남 섬 관광 해설사로... 道, 가고 싶은 섬 14곳 대상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전남도는 19일 “섬 주민이 직접 그 섬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이를 관광 콘텐츠화 해 여행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섬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주민을 ‘섬 해설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섬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섬을 소개할 코스와 이야기를 만들어 따뜻한 정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광 해설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지에서의 집합교육이 아닌, 섬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이다. 섬 전문가, 작가, 관광 해설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접 섬을 찾아가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한다.

주민들의 생각을 기초로 해 섬 여행코스와 테마를 디자인하고 이에 따른 해설사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섬 콘텐츠’를 갖추게 된다.

교육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남도 섬발전지원센터에서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14개 섬에서 섬별 1차 사전교육, 2차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으로 찾아가 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으로 그려낸 섬 이야기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솔한 ‘전남의 섬만이 가진 특별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2016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23명이 수료해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과 교육을 /김재정기자

광주마스터즈대회 시민 환송식

광주시민들이 마스터즈대회를 마치고 광주를 떠나는 각국 선수단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광주시는 19일 대회 선수촌에서 시민서포터즈,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광주기독교교단협회 등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 선수 170여명을 대상으로 환송식을 개최했다.

시민서포터즈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선수촌을 나서는 각국 선수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영대회 성공개최의 주역인 시민서포터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해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 시민서포터즈는 해단식을 끝으로 3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최권범기자



19일광주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폐회된 가운데 시민서포터즈들이 19일 선수촌에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대회 참가국 선수들을 환송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수영대회 역대 가장 성공...시민들에 감사”

이용섭 시장이 시민들에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수영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국 선수단으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며 “적은 예산, 복합활용, 국내스타선수 부재라는 3대 약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지역 언론의 보도 덕분에”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 개최로 광주는 ‘수영대회 광주’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은 과제는 수영 인프라 확충 등 레저사업(유산사업)을 통해 광주대회의 경험과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를 설립해 수영선수 및 지도자 육성, 수영의 대중화, 조기 생선수영을 실시하겠다”며 “이낙연 총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

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났다.

이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내용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기에 AI사업 추진위원회와 추진단(가칭)을 발족시켜 운영하고 실리컨벨리와의 협업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5일 도시철도 건설 기공식을 개최해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기자



전남도, 日수출규제 긴급경영자금 지원

기업당 최대 5억원...이자 2.5~3.0% 보전 방침

전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당 용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우대기업, 일반은 3억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3%(우대기업, 일반은 2.5%)를 이차보전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는 평균 1.3~1.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이미 전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월4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남도 또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확인해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288-3831-2)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도시철도 ‘자원봉사 체험존’ 인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자원봉사(김대중컨벤션센터역), 재능나눔(남광주역), 재난재해구호·안전(금남로4구역), 5·18과 평화(문화전당역), 환경·문화(확동·증심사입구역) 등의 주제 아래 크레파스 리사이클링, 장애체험, 태극기비즈공예, 심폐소생술 교육, 예코백과 프로그램으로, 광주도시철도 6개 테마역에서 즐길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 10월말까지 매일 둘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체험 이후 소감문 제출시 봉사활동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체험코스는 국제구호(공항역), 인권

체험존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광주도시철도 6개 테마역에서 즐길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 10월말까지 매일 둘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체험 이후 소감문 제출시 봉사활동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체험코스는 국제구호(공항역), 인권

지역 소재 대학연구진과 개발연구로 탄생한 EQ공법

건축물의 내부기둥이 없어 최고의 공간활용

V,E 검토 무료

“철골공사 원가절감 40~15%”

- ▶ 내부기둥이 없는 "철골 접합부 내진보강공법"
- ▶ 철골 구조검토 및 구조설계
- ▶ 무료 경제성(V,E) 구조검토

패널존의 응력변화

- ▶ 신기술'내진강접합시공공법(EQ공법)'개발주목
- ▶ H형강원자재활용 접합부보강으로 안전성극대화
- ▶ 횡적구조설계강재량감소, 공간↑ 공사비40%↓
- ▶ '단부보강형철골구조물'특허획득 내진성능강화
- ▶ 차별화된기술력으로 안전성·경제성극대화

EQ구조엔지니어링(주) | 전남 목포시 하당로30번길 14(상동) TEL:061)281-29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15/3 1층 TEL:063)224-2766